

“현장에서 답 찾는 농협으로 거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현장과의 소통 강화... 전북농협 현장경영 진행

농협중앙회는 20일 전북본부에서 2024년 전북농협 현장경영을 개최해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경영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경영전략 등을 공유했다.

강호동 회장은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고, 중앙회와 농축협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공유했다.

전북지역의 농축협 조합장들은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



농협중앙회는 20일 전북본부에서 2024년 전북농협 현장경영을 개최해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

한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경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마련하는데 건의 하고 농협 내부에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립의 중요한 자료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강호동 회장은 전북농협 현장경영에 앞서 전북본부에서 진행되는 ‘쌀떡볶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쌀 가공제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와 국민들이 우수한 우리쌀로 만든 가공품을 많이 애용해 주길 당부했다.

강호동 회장은 “조합장님들이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고민했던 여러 의견들이 모두 무겁게 다가 왔다”며 “언제나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정읍 농어촌공, 2024년도 1차 수질환경보전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진국)는 20일 정읍지사 석우저수지에서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1차 수질환경보전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수질환경보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용 저수지 수질환경 관리를 위한 각계 역할 분담과 더불어 수질오염 저감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 활동을 통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토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위원 및 지사 직원들은 저수지 제방 및 인근 주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또한 실시했다.

이진국 정읍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및 국지성 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정읍지역 농업용수 관리 및 수질개선, 환경보전을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운영협의회 개최

통합환경관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지원방안 모색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일 오후 2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도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78개소가 참여하는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는 통합환경관리 사업장간 멘토링 그룹을 구성해 통합환경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소통 등을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매년 참여 사업장을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지방환경청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 현황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각 멘토사가 2024년 상반기 멘토링 운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일 오후 2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도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78개소가 참여하는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실적과 환경관리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장 지원방안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 앞서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통합환경관리 법정교육 횟수 및 교육지역 확대, 통합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 요청 등의 건의사항이 발굴돼, 통합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이 전북지역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도내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 위주의 통합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전북환경청 자체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환경청 담당자와 멘토 사업장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제도 개정 사항, 정기검사 계획·일정 등을 공유하고 사업장 애로사항·의견도 청취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제시 이모작 콩 파종 현장 살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9일 김제시 밀·콩 재배지를 찾아 밀 수확 후 파종한 이모작 콩 ‘선유2호’ 밀식재배 상태를 살펴보고, 협업연구농장 농업인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이모작 콩 ‘선유2호’를 관행보다 밀도를 1.5배 높여 밀식재배 하면, 기계화 안정성과 수량을 높일 수 있다”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논에서 밭작물을 안정 생산할 수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9일 김제시 밀·콩 재배지를 찾아 밀 수확 후 파종한 이모작 콩 ‘선유2호’ 밀식재배 상태를 살펴보고, 협업연구농장 농업인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협업연구농장과 현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새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축산공영농조합법인 한은성 대표는 “‘선유2호’를 비롯해 밀·콩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재배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협업연구농장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현장 맞춤형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친환경제품 사용 약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 사용을 약속합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플라스틱 오염 저감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범국민 캠페인으로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

이나 영상과 함께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실천 각오를 다짐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종일 (주)전북은행 은행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정태 회장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 정석케이칼 대표(이 사)를 지목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은행,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피해예방 캠페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에 전북은행이 앞장서고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전북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어르신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행복晚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사)대한노인회 전북취



업무지원센터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디지털 금융 활용사례, 안정된 노후재무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전북에듀페이 체크카드 결제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북에듀페이 체크카드 발급 고객 대상으로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결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 에듀페이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등 배달의 민족 상품권 2만원 10명, 2등 올리브형 상품권 1만원 50명, 3등 GS25 상품권

3,000원 190명 등 총 5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 7월 8일부터~21일까지 2차로 나눠 진행, 1차 당첨자가 2차 이벤트에 중복 참여 가능하다. 1차 이벤트는 7월 12일, 2차 이벤트는 7월 26일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